

# 무주, 농업환경보전 사업비 13억 확보

### 무주읍 잠두마을, 설천면 기곡마을 경관·생산 활동·환경 개선

무주군 무주읍 잠두마을과 설천면 기곡마을이 농축산식품부로부터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시행지로 선정(5년 간 13억원)됐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식량생산 공간에서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마을) 거주민들이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의지가 높고 생태, 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은 무주읍 잠두마을에서는 하천경관 개선을 비

롯해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과 수달에 의한·농경 피해감소, 퇴비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이 진행된다.

농업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은 설천면 기곡마을에서는 소각금지, 우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양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기준 지키기 등이 추진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강명관 친환경농업 팀장은 "두 마을 다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다"라며 "5년간 추진이 되는 사업인 만큼 각 마을 특성과 현실에 맞는 환경보전 프로그

램들이 시행돼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 잠두마을은 반딧불이 탐사지(생태공원)로서 황금쏘기리와 얼음치, 수달 등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1ha규모에서 호두를 재배(친환경)하고 15ha 규모에서 사과,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 설천면 기곡마을은 사회적 농업 지정 마을(호봉불 마을)로 1.3ha 규모에서 아로니아와 호두, 포도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20ha 규모에서는 인삼과 복숭아 등을 재배하고 있다. 5백년 된 당산나무와 수달, 삵 등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누리파크모험놀이터' 조성사업 선정

### 국도비 사업 등 70억원 확보

장수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관광자원 개발 분야 공모사업에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와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장수읍 소재 농촌테마공원인 장수누리파크 내에 조성되는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는 작은도서관, 공연연습실, 어

린이 실내놀이터, 영유아 안전놀이터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모험놀이터는 사계절 발물놀이장과 숲속자연놀이터 등으로 조성돼 지역 주민의 문화 감동 해소와 생활복지 향상 및 관광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와 모험놀이터는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 착공해 2021년 하반기 준공·

운영 될 예정이다.

장수읍 군수는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및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으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부모들을 위한 가족 중심의 문화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생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임시휴장

### 전면 시설 개보수 착수... 내년 1월 31일까지 휴장

진안군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설 개보수공사로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2013년 개장 이후 여과장치, 급수관 등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수영장 바닥 및 사

위장 누수로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이용객 맞춤형으로 전면 탈바꿈 해 깨끗한 수질관리는 물론 이용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기간 휴장 안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용객에게는 월 회원권 환불과 기간연장, 인근 시군 수영장 이용 등 휴장 기간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은 "안전한 수영장 환경개선과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됐으며, 새롭게 단장해 재개장된 이후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농협 임시총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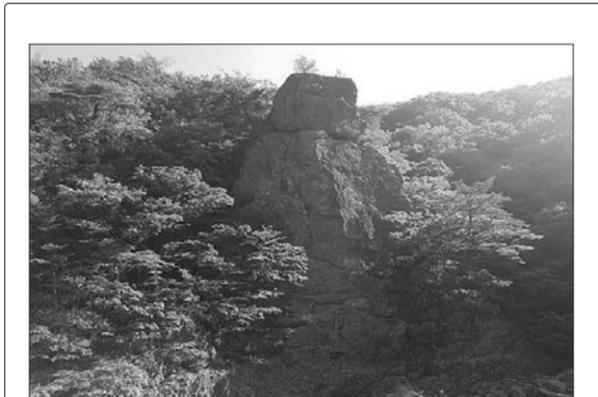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지난 29일 장수농협 본점2층에서 2019년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열어 2020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은 임시총

회에 앞서 조합원 자녀 중 금년 입학한 22명을 선정해 각 100만원씩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김용준 조합장은 "2019년 임시총회를 맞아 올해에도 농업환경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으나 장수농협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장수농협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주시 조합원님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말하고, "앞으로 스마트한 경영과 능동적인 자세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에 위치한 '대불바위와 열두굴'이 진안군 3번째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 운일암반일암 '대불바위와 열두굴' 진안군 3번째 산림문화자산 지정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에 위치한 '대불바위와 열두굴'이 진안군 3번째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최근 산림청에서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국에서 신청한 22개소 산림문화자산에 대해 생태적, 경관적, 예술적, 역사적, 정서적, 학술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지정 적합성 등을 심사했다.

진안군은 대불바위와 열두굴 2개소를 신청했으며, 1개소로 통합해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진안군은 총 3개소의 산림문화자산을 보유하고 됐다.

운일암반일암은 절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협곡으로 여러 기암괴석이 있으며, 이 중 대불바위는 바위를 포개 모습이 흡사 부처님과 같다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열두굴은 백제가 망할 때 충

절 있는 열두 장군이 은거하며 충절과 패기로 신라의 침공을 막으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통한의 슬픔을 삼키며 연기처럼 사라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적극 발굴하고 산림문화자산의 역사, 문화, 지리, 수목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진안군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문화자산 지정대상은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기록물, 유적지, 전통의식 등이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건이 지정됐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11개소가 있으며, 진안군은 백운 데미생과 정전 하초마을숲 2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선정

무주군이 2019 숲가꾸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공모는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경제림가꾸기(면적 5ha 이상, 사업 면적의 30% 이상 산물 수집을 실행한 곳)와 공익림가꾸기(면적 5ha 이상, 기능별 산림관리에 특화된 곳)등 부분별 서류심사와 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협회 전문가들의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5개 사업장을 확정했다.

'신촌생태마을 휴양 기능 증진 숲가

꾸기'를 추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무주군은 무풍면 금평리 일원에서 공익림가꾸기를 진행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잔존목과 미래목이 적절하게 배치돼 단목처리 등 공익림가꾸기가 우수하게 실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이상일 산림조성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숲가꾸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군 사과재배 농업인 간담회

장수군은 지난 29일 군민회관에서 장영수 군수와 사과재배 농업인 등 관계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사과재배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도 주요사업 설명과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토의, 과원 현장에서 문제시 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과 농가는 특히 사과 최저가 보장제와 출하박스 지원, 노후과원 정비(폐원) 지원을 건의하고 기상재해(동해, 서리) 예방지원,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 석송사, 수정벌)지원, 과수저장성 향상(에틸렌 생성억제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보조금 10% 상당 지원을 요청했다.

군이 이번 사과재배 농업인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사과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행정과 생산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한 전국 최고의 장수사과 명성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의 명품, 장수 사과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2020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29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2020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관련 마을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1·2단계 마을만들기사업 참여 18개 마을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마을 시상과 현관 전달식이 진행됐다. 마을만들기 1단계인 그린빌리지사업 참여 우수마을 3개소에는 1천만원의 추가 사업비도 지원했다.

또한 우수마을로 선정된 9개 마을의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요성과 마을의 현실에 대한 강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교육 등 다양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오후에는 사업별로 나누어 2020년도 마을사업 구상을 돕는 사례강의와 퍼실리테이션 워크숍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마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어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